

역대급 폭염 '시민 안전 지키기' 총력전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농업인·독거노인·현장근로자 지원
119구급대 온열질환자 신속 대응
그늘막 576곳·쉼터 2068곳 조성



광주농업기술센터 소속 농업인 안전 현장기술지원단원들이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광주시가 최고 35도를 웃도는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시는 특히 폭염 3대 취약자로 꼽히는 고령 농업인과 독거노인, 공사장 현장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6일 광주시와 기상청에 따르면 광주 도심은 최근 최고 36.4도를 넘어서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26일부터 폭염경보 상향조정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피해 예방 등에 신속 대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을 최근 4년 만에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한 상태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올 여름 광주지역 누적 온열질환자는 40명으로, 열사병 10명, 열탈진 20명, 열경련 5명, 열실신 3명 등이다. 지난 2일 온열질환 사망자로 추정됐던 시민 1명은 최종 사인 미상으로, 온열질환자 집계에선 제외됐다. 전국적으로는 171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21명이 사망했다. 광주시는 전국적인 폭염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재난문자 발송, 전광판 알람, 마을 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 행동 요령을 적극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민이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도심 곳곳에 설치하는 등 폭염 피해 최소화해 집중하고 있다. 광주 도시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은 그늘막 576개소, 도로살수분사장치 2개소, 그린통합쉼터 2개소, 무더위쉼터 2068개소, 물안개분사장치 24개소 등이다. 매일 살수차 12대를 총동원해 아스팔트 열기로 뜨거워진 도로 온도를 낮추는 데도 힘쓰고 있다.

고령,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폭염 취약계층

을 대상으로는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화나 방문 등 돌봄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119폭염구급대를 최일선에 배치하고 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다음 달까지 33개 구급대 297명과 27개 예비구급대 212명을 '119폭염구급대'로 지정했으며, 얼음조끼와 생리식염수, 전해질용액 등 9종의 장비를 갖추고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광주농업기술센터는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고령 농업인을 돕기 위한 '농업인 안전 현장기술지원단'까지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고령·취약 농업인이 폭염 피해를 입지 않도록 6개 지역농업인상담소와 협력해 마을회관 방문, 마을방송 안내, 리플릿 배부에 나서는 등 현장 중심의 지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폭염 때마다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축산 농가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소·돼지 등 가축 사육농가 150호에 축사환풍기 108대,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1t, 면역증강제 1t을 지원하는 한편 지붕 물뿌리기, 차광막 설치 축사 온도 낮추기, 적정 사육두수 유지, 시원한 물·비타

민제 급여 등 여름철 관리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가축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민관합동 동물의료지원반도 구성했다.

이 같은 다양한 지원 정책과 함께 야외 종사자의 온열질환을 막기 위한 특별점검도 강화했다.

시는 지난 3일부터 여름철 온열질환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육외종사자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상에 열사병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점검 대상은 시설관리·공원녹지·도로 유지보수·환경미화·조리 업무 등 종사자가 근무하는 우치공원 관리사무소·농업기술센터·종합건설본부·푸른도시사업소 등 23개 부서다.

점검사항은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 준수 ▲휴게공간 마련 및 적정 관리 ▲폭염 위험단계별 근로자 보호 조치 이행 ▲온열 질환 예방 교육 여부 등이다. 윤건열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시민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점검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무료 공공와이파이 120곳 확대 설치

도서관·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광주시는 "다중이용시설 120곳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한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는 수요조사와 설치요청 민원 등을 종합해 공공와이파이 설치장소로 내남동 구립도서관, 첨단종합사회복지관, 우치공원 등 120곳을 확정했다.

이달 중 현장실사를 통해 무선공유기(AP) 설치 위치와 유선 구축이 어려운 옥외에는 5G 무선 전용망, 다중밀집 지역에는 10G 유선 전용망 서비스를 구축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전은옥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사업은 시민의 무선인터넷 접근성 향상과 통신비 절감을 위

한 것"이라며 "자치구의 적극 협조와 와이파이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시민의 가계통신비 경감 및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2013년부터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주요 공공시설과 관광지,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 2943대를 설치했다.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스마트폰 와이파이 설정에서 'Public Wifi Free', 버스의 경우에는 'PublicWifi@Bus_Free_0000'으로 접속한 뒤 사용자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CES 2024' 참가 혁신기업

광주시, 10일까지 모집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내년 1월 9~1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 참가할 혁신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CES는 매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전자·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시회로, 미래 기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 최대의 가전·IT 전시회다. 모집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며, 미래 차와 에너지 등 신산업·혁신 기술 분야 8개 기업, 인공지능(AI) 분야 5개 기업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참가 기업으로 선정되면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전시부스비, 항공료, 물류비, 통역비 등을 지원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반려동물 다음달까지 자진 신고하세요

광주시 등록 신고 기간 운영
2개월령 이상 의무등록
과태료 면제·등록비용 지원

광주시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동물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 미등록 때에는 최대 10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때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주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곳에서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등록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등록대행업체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등록대행업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는 내장형 등록 방식에 한해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4500마리에 한해 1마리당 3만원(1인당 3마리 한도)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등록대행 동물병원에 방문해 동물을 등록한 후 해당병원에서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남택송 광주시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의 유실과 유기를 막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익산 수해 복구 지원 봉사 구슬땀



광주도시공사 임직원들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익산을 찾아 피해지역 복구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시공사는 복구 지원과 함께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지원금 500만원을 익산시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 <광주도시공사 제공>

광주소방본부, 올해 소방법 위반 45건 적발

작년 동기 대비 2.5배 증가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올해 1~7월 소방관계 법령 위반 대상 45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18건보다 2.5배 증가했으며, 이 중 31건을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검찰에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소방시설법 위반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6건, 소방기본법 4건, 화재예방법 3건 순이었다. 소방시설법 위반 사례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 점검 미이행이나 비상문 잠금·폐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은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완공 검사에 합격하기 전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등이다. 소방기본법 위반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이 속한다. 화재예방법 위반은 대상물에 대한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김중률 광주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장은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화재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됐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